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제16대 장로선거 일정

- 5월 7일(주일) 제16대 장로선거를 위한 제직회 -

당회는 지난 4월 정기당회에서, 앞서 서울강남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서울교회 제16대 장로 5명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5월 7일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예비후보 10명 선출을 위한 제직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직회에는 서울교회 정관 제7조 1항에 따라 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협동장로,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집사 등이 회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당회가 제시하는 장로후보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정해진 교회제직 선출 기준에 당해 연도 은퇴예정자 및 최소 시무기간이 2년 이상 남지 않는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 후보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23년, 2024년 은퇴자(1953, 54년생)를 제외한 서울교회에 출석 중인 만 40세 이상의 안수집사(1955년 1월 1일 - 1983년 5월 20일 출생자), 권사(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고 다음 주 순례자에 임직 순, 연령순으로 번호를 정하여 그 후보명단을 배

포할 예정입니다. 제직들은 한 주간 동안 배포된 명단을 잘 살펴보고 기도한 후 다음 주 제직회에서 서울교회 장로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예비 후보 10명을 선정하여 기표하면 되고 이후 개최되는 공동의회에서 최종 장로후보 5명이 피택되게 됩니다.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되는 장로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노회의 위탁교육과 당회의 훈련을 받고 내년 봄 노회 전에 실시되는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서울교회에 주의 신실하신 장로 5명이 꼭 피택될 수 있도록 아울러 모든 선거 일정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일정 안내>

1. 4월 30일(주일) : 후보명단 순례자에 공고
2. 5월 7일(주일) : 특별제직회-10명 후보 선출
3. 5월 14일(주일) : 후보 10명 명단 순례자에 공개
4. 5월 21일(주일) :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2023년 4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3년 두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

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례자
이승애 전업순 김동선 노규미 송재원
계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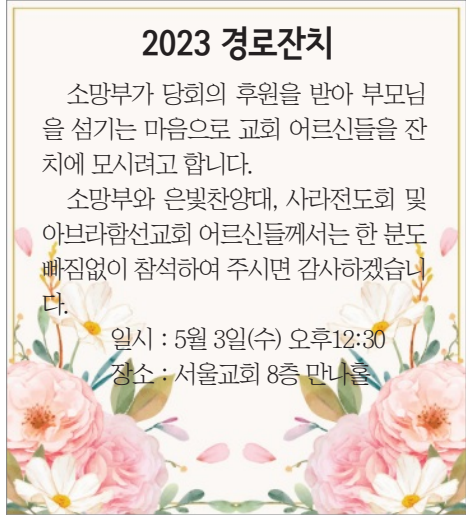


2023 경로잔치

소망부가 당회의 후원을 받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잔치에 모시려고 합니다.

소망부와 은빛찬양대, 사라전도회 및 아브라함선교회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5월 3일(수) 오후12:30
장소 : 서울교회 8층 만나홀



스데반회 지하주차장 물청소

서울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회장:홍창훈 안수집사)에서 4월 29일(토) 오전 10시 교회,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겨우내 쌓인 먼지와 염화칼슘을 물청소하며 닦아낼 예정입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4월 29일(토)까지 이동하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행 11:19-26)



손달익 위임목사

본문에는 스테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거주가 불가능해진 성도들이 피난길에 나섰고 그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 정착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음으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이들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함으로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떠난 피난길이었지만 사람으로서는 계획할 수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루어졌습니다.(21절)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표현이 13차례나 등장하는데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항상 '주의 손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시 92:4, 눅 1:66)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의 능력으로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과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환난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직후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120여 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3천여 명의 세례로 이어졌고(행 2:41) 후에는 '남자의 수가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행 4:4)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습니다.(행 6:7)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속도로 성장한다면 수개월 내에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성취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유대교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고 교회는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더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환기의 위기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였고,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행 11:18)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선민사상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환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전환기의 또 다른 모습은 중심인물의 교체입니다. 초대교회 중심인물은 단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이후로는 바울 중심의 교회역사가 전개됩니다. 전환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조심스럽고 위험한 시기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과정을 매우 안정적으로 잘 극복해 냈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외적으로도

큰 성장을 했고, 개개인의 신앙도 매우 성숙해졌습니다.(21, 26절)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은 온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거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난과 박해 그리고 분산과 시련의 파도를 넘었고 전환기의 위험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바나바의 지도력

초기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던 예루살렘의 피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 태생으로 레위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열정적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선정되자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그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박해자 사울로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를 냉대하고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바나바가 보여준 태도는 언제나 자기희생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바울과의 갈등이 생기자 순순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3. 가난한 피난민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였던 사람은 비록 바나바뿐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초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본문 19절은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대대적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고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교회는 우리가 지킬 터니 여러분들은 피난을 가라'고 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신변의 위협과 가난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예수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헌신케 했습니다. 선교역사가 스테판 닐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마케도냐를 향하는 순간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 예수님 위해서라면 자기 온 삶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안디옥 사람들,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무력하여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했지만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사역자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김광래 안수집사
(소망부 부장)

날이 따뜻해지고 신록은 푸르러지는 5월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소망부에서는 5월 가족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어르신들이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반가운 얼굴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당회의 후원을 받아 교회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할 예정입니다.

젊으셨을 때는 기도와 헌신, 봉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 지킴이로, 기도의 어머니로 본을 보이신 서울교회 어르신들!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교회 8층 식당에서 진행하오니, 이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교회로 나오셔서 수요일예배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신 후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

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돕는 모든 손길에 감사를 전하며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수요일, 만나홀에서 뵙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편지

인도네시아를 하나님 품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우기입니다. 매일 오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비가 오니 환경이 습하고 바람도 많고 아침 저녁 기후 변화가 심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광중 선교사는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성악 실기 3명, 교회음악행정, 교회음악 문헌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압디엘 신학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식이 있

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적게 수학하는 까닭에 모두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자인 아궁은 모교인 압디엘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성악 전공자인 로나 목사는 본인의 고향에 있는 신학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또 다른 성악 전공자는 한국 유학을 위해 언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과 대학원의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압디엘 합창단은 부활절 전에 중부자바 섬의 '꾸두스'와 '즈빠라'지역의 교회들의 요청에 의해 순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곳 최대의 명절 르바란(금식월 후, 4월 넷째 주)을

피해서 스마랑시와 솔로시로도 순회 연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합창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학교 홍보의 효과도 동반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성일 선교사는 압디엘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과에서 '기독교 교육의 부흥의 모델과 전략'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교육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전인교육을 지도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요청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다양한 어린이 설교 지도법과 학습 계획안 작성법 등도 강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선교사가 그



동안 모아 두었던 기독교 교육의 모든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대여하여 교회에서 사역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디엘 한국어 학당은 기초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선교사는 기초 2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문법,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명은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은 현재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또 다른 1명은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4명의 학생 모두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마바빠 선교센터는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선생인 미스 리즈끼가 마을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요청으로 미스 리즈끼가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스 리즈끼는 대학생때부터 오마바빠 선교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오마바빠의 교사로 근무한지 현재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선생님입니다.

6-7학년 반 한글학교에 학생이 늘었습니다. 이성일 선교사는 토요일 한국 학생들을 위한 한글학교에서 6-7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의 6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 한 번도 오

지 않았던 남학생 한 명이 새로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2.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3.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회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4. 압디엘 한국어 학당을 위하여
5. 압디엘 성가대의 부활절 연주회를 위하여
6. 압디엘 기독교 교육과 교육 자료실을 위하여
7.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서광중·이성일 선교사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2)

선교사, 국왕을 호위하다



미우라 고로



윌리엄 다이(William McEntyre Dye)



윤치호



김홍집



올리버 R. 에비슨

1895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도 아래 명성황후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일전쟁을 승리하고 러일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이 조선의 대 러시아 관계 핵심이 명성황후라고 판단하고 제거한 것이었다. 왕실의 상징이자 조선의 안방인 경복궁에서 황후가 시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조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고종의 충격은 더욱 컸다. 복수를 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투를 잘라 짚신을 삼아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상심과 분노가 컸을 뿐 아니라 자신도 언제든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일본과 친일파 관료에게 포위당해 사실상 경복궁에 감금된 고종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식사도 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나마 서양인이 자신의 주변에 있어 준다면 일본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고종은 미국공사관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불침번을 서달라고 부탁했다. 이 요청에 따라 언더우드, 에비슨, 아펜젤러, 헐버트, 존스가 미국 군사고문인 다이(William M. Dye)와 함께 7주 동안 권총으로 무장한 채 매일 밤 왕의 침소를 지켰다.

독살을 염려하여 음식도 먹지 못하는 고종의 식사를 준비한 것은 언더우드의 부인인 호턴과 러시아 공사의 부인이었다. 이들이 만든 음식은 미국 자물쇠로 잠긴 큰 양철통에 담겨 고종에게 전달되었다. 양철통은 조선의 관료

들이 옮겼지만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반드시 언더우드가 고종에게 직접 전달했다. 고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고종은 의사인 에비슨이 개봉된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확인한 후에야 음식을 먹었다.

고종은 일본과 친일파 관료가 장악하고 있는 경복궁을 벗어나 미국과 러시아의 공사관이 있는 정동으로 탈출하기를 원했다. 감시를 피할 기회를 엿보던 고종은 언더우드의 손을 잡는 척하며 자신의 뜻을 적은 밀지(密旨)를 전달했다. 언더우드가 받은 메시지는 정동의 서양인에게 전달되었다. 서양인들은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고종이 정동으로 피신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친미·친러 성향의 조선인 관료들과 논의하여 1895년 11월 28일을 기해 국왕을 탈출시켜 미국 공사관에 모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 조선의 관료와 서양인 사이의 연락책임을 맡은 윤치호는 미국공사관에 국왕의 보호를 위해 서양인이 입궐해 있을 것을 요청했다. 다시 선교사들이 나섰다.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가 고종을 호위하기 위해 경복궁에 들어갔다. 고종은 선교사들을 반기며 밤샘 경호를 위해 침소 인근의 장교 숙소에 있어줄 것을 부탁했다. 자정 즈음 조선 관료들이 조직한 구조대가 경복궁의 춘생문에 도착해 총격전을 벌였다. 총소리를 들은 선교사들은 권총을 들고 고종에게 달려가 옆을 지키며 구조대를 기

다렸다.

하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구조대 중 호위대장 이진호가 변심하여 밀고하는 바람에 1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주했기 때문이다. 거사가 실패하자 곧 친일내각의 총리 김홍집 등이 찾아와 고종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는 명분으로 끌고 가려 했다. 김홍집이 고종의 손을 잡아당기자 고종은 에비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에비슨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고종이 움직이지 않자 군부대신 어윤중이 왕세자를 끌고 가려 했다. 왕세자는 언더우드의 손을 잡고 버텼다. 김홍집 일행은 결국 소득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고종을 탈출시킨다는 원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을 이른바 '춘생문 사건'이라고 부른다.

춘생문 사건은 조선 왕실과 선교사들이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고종을 위한 봉사를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훗날 헐버트는 고종의 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몰락하는 나라의 왕실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선교를 개시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은 이방 종교의 선교사였다는 사실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신하에게 맞설 힘이 없어 선교사의 손을 잡고 버텨야 했던 고종의 비참함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주는 장애인주일로 사랑부 학생들의 특별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그 찬양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은혜받았습니다. 32년 전 사랑부 설립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70인전도대!



4.15 토요일노방전도 바울선교회

4.16 주일노방전도 마리아전도회

4.19 수요일노방전도 에스더전도회



한 걸음 한 생명 땅끝까지 화이팅!



4.19 수요일노방전도에는 서문석 원로장로, 이관규 은퇴장로, 최형렬 장로님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셨습니다. 전도에 은퇴는 없습니다!

가정의 달과 함께 하는 미리 바자

2023년 바자위원회(위원장:김광태 장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으며 미리 바자를 합니다. 품목은 한우 국거리와 다짐육으로 상품은 300g 단위로 냉동 포장되어 있습니다. 한우 등급은 1++, 1+,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4일, 가격은 1팩에 7,000원 입니다.

주문은 카톡 메신저로만 받으며 이번 주간에 선주문, 입금하시고, 상품은 다음 주일(4/30)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허숙 권사 010-3743-4013
입금 계좌:국민 248202-04-077714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봄학기 모집

교육위원회(위원장:김혜언 장로)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수강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3년도 봄학기 : 4. 15(토)-6. 18(주일), 10주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45,000)
-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구 분	요 일	시 간	과 정	장 소	강 사
클래식 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호	장윤식 안수집사
통기타	주일	13:50	10주	505호	박민서 안수집사
	토요일	10:00	10주	505호	김상운 선생
베이스 기타	토요일	11:30	10주	505호	
드럼	토요일	13:00	10주	101호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요일	14:00	10주	505호	최명아 선생
기초연기	토요일	토, 오후 7시	10주	701호	박재현 배우(한예종 출신)

식사

-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자녀 일동 (부모님의 금혼식을 감사하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24일	월	왕상 19-21		사 44-53	
4월25일	화	왕상 22		사 54-66	
4월26일	수	왕하 1-4		렘 1-6	
4월27일	목	왕하 5-7		렘 7-13	
4월28일	금	왕하 8-10		렘 14-20	
4월29일	토	왕하 11-14		렘 21-27	
4월30일	주일	왕하 15-17		렘 28-3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받는 성도되게 하소서.
-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 권사회가 함께 하는 노방전도 현장에 성령의 역사 나타내게 하시고, 파송 선교지와 놓여준 후원교회, 비전2023 군선교지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